"마을 관통 도로노선 바꿔달라"

나주역~혁신도시 4차선 도로 개설
금천 고동리 주민들 설계 변경 요구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주민들이 나주역에서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가 자신들의 마을을 관통, 개설될 경우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금천면에 들어서는 혁신도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1천355억원을 들여 송월동에 있는 나주역에서 혁신도시까지 5.42㎞를 4차선 도로로 새롭게 신설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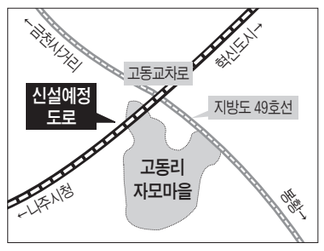
그러나 해당 도로가 고동리 2구 자모마을을 관통하도록 설계돼, 해당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용택(고동리 2구 이장)씨는 "지금 개설되고 있는 도로가 마을을 관통할 경우 도로가 높게 설계돼 마을이 성벽에 둘러싸인 형태가 된다"며 "당초 계획된 3가지 설계구간 가운데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구간을 선택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설계를 맡은 A회사 측 관계자가 지난 6일 해당 마을을 방문해 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40여 명의 주민들은 노선변경을 강력히 요구,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마을 주민 K모(71·여)씨는 "도로가 개설되면 수십년 동안 살아온 집이 뜯기게 되는데, 집 근처에 있는 논밭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는 도저히 이주할 수 없다"면서 "힘없고 빽 없는 농사꾼들이라고 이처럼 무시당해야 하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A회사 측 관계자는 "해당 구간이 도로여건상 가장 합리적인 구간"이라며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도로높이를 낮추는 등 방안을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난감한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당초 타당성 조사 용역단계에서 3가지 구간에 대한 계획안이 마련돼 추진됐으나 최종적으로 고동리 2구 마을을 관통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화순 풍류문화 큰 잔치 오세요"

14~18일 하니움센터 일원서 열려

화순군 13개 읍·면의 고유 민속을 테마로 하는 '2009 화순 풍류문화 큰잔치'가 오는 14~18일 5일간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와 화순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화순인의 삶과 문화를 찾아서 그 두 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지난해보다 짜임새 있는 마당극과 민속놀이를 펼치며 여기에 이야기(story)를 가미, 우리의 맛과 멋을 이어가는 전통 축제를 선보인다.

이번 축제에는 마당극 형식으로 '학서도와 대리 석불 입상 전설'(화순읍)을 비롯해 ▲금오산 전설(한천면) ▲쌍산의소 의병놀이(이양면) ▲다산제(도곡면) ▲뽕 따러 가세(이서면) ▲최씨 부인 전설(동복면) ▲모후산 제월천이야기(남면)를 공연한다.

또 민속놀이로 ▲변천리 디딜방아(춘양면) ▲풍년농사 용놀이굿(청풍면) ▲들노래(능주면) ▲외따먹기(도암면) ▲상여소리(북면) ▲전통혼례(동면)를 선보인다.

공식행사로는 길놀이, 능주목사 부임행렬 등 13개 읍·면 입장식과 도립 국악단 공연, 안동 하회탈 별신굿, 김덕수 사물놀이 등이 예정돼 있다.

체험행사로는 고인돌 선사체험 학습마당, 읍·면 전통 민속놀이 체험, 가훈 써주기, 전통 초가집 농기구 전시 및 농경생활 체험 등이 마련된다.

이 밖에도 한국 한방약선 요리 경연대회를 비롯해 풍류와 함께하는 맛자랑 대회, 풍류대전, 전국 우수견 선발대회 등 다양한 전시·부대행사가 펼쳐진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영광 백제불교 도래지에 한옥민박촌

36억 들여 내년 3월까지 9동 조성

영광의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에 전통 한옥 민박촌이 들어선다.

7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백제한옥민박협의회와 전통한옥 민박단지 조성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36억원을 투자, 내년 3월까지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일대에 전통 한옥단지 9동을 조성한다.

2009년을 '영광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5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정한 영광군은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민박촌 조성을 계획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한옥 민박촌 조성으로 지역의 소중한 문화와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변 관광지와 조화를 이뤄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는 384년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동진을 통해 당시 백제 영토였던 영광 법성포에 처음 발을 디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친환경 미생물 농약 7일 장성군 남면 한 농민이 수확을 며칠 앞두고 등숙(登熟)과 미질향상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살포하고 있다. 여기에는 칼슘제와 해조류 추출물이 함유된 복합비료를 함께 섞어 사용한다. /최현배기자 choi@

장성군 지정보호수 외과 수술

3,900만원 들여 환경 개선

장성군이 보전 가치가 있는 지정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장성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3천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정 보호수 20본에 대한 외과수술과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에 외과수술과 주변 정비사업 대상지 일제조사를 실시해 외과수술이 필요한 지정 보호수를 확정했다. 이달 중 실시설계와 계약의뢰를 통해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사업에서는 병해충에 감염됐거나 썩은 부위를 도려낸 뒤 인공수피 작업을 통해 방수처리, 살균처리, 방부처리를 실시한다.

또한 보호수 주변에 자연석을 쌓고 토양도 보충해 보호수가 생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줄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보호수에 얽힌 전설을 비롯해 보호수가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보호수 보전사업에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호수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괭나무, 동백나무 등 총 231본의 지정 보호수가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식물향 추출' 실용신안 등록
전남도 산림자원연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난대수종 향료를 추출하기 위해 연구개발한 '식물향 추출장치'가 실용신안 등록됐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2007년 11월 특허출원을 한 '식물향 추출장치'가 최근 등록이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용신안 등록은 전남지역 관공서에서는 처음이며, 앞으로 식물향료 추출을 통한 전남 향료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전남지역에 널리 분포한 난대수종을 고부가 가치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2002년 녹나무 '감과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후 산림수종에 대한 향료 추출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최권일기자 cki@

12개 읍·면 순회 경로잔치

완도군 내달 6일까지

"경로행사는 간소하고 검소하게 그러나 정성을 다해…"

완도군이 '경로의 달'을 맞아 노인에 대한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고 소외감을 달래고자 12개 읍·면을 순회하는 경로잔치를 8일 소안면을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연다.

경로잔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초청해 노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어린이 재롱잔치, 국악과 가요공연, 장기자랑 등이 펼쳐지며, 간단한 점심과 다과도 제공된다.

군은 기념행사를 간소하게 치르는 대신 '효사랑 가정', 효자·효부, 노인복지 공로자를 발굴해 표창하는 등 효 실천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완도군은 2006년 '노인 수발급여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돼 전국 최초로 노인수발사업을 시행했으며 도서지역에 맞는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새얼굴

"조합원에 실익주는 조합 만들것"

빙 기 윤 곡성농협조합장

"농협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합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상생하는 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일 취임하는 빙기윤(60) 곡성농협 조합장은 "조합원이 주인이며 신뢰받는 농협, 조합원의 소득을 증대하여 실익을 주는 경제사업 추진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각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곡성읍 출신인 빙 조합장은 자유총연맹 곡성군지부장, 평화통일자문위원회 곡성군 협의회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조영숙(51)씨와 사이에 1남3녀를 두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 강 영 희
☎ 062)364-8700
H.P 010-4608-3700

아파트

지역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평형)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월곡동	일신	105/32	8천	5천6백
	월계동	대우	158/48	1억9천	1억3천3백
		오아	115/35	1억2천5백	8천7백
		라인6차	109/33	8천	5천6백
		삼성	109/33	1억	7천
		철단선경	112/34	1억2천	8천4백
		금호타운	112/34	1억1천5백	8천
	장덕동	수완자이	165/50	3억8천2백	2억6천7백
남구	송하동	삼익	105/32	9천4백	6천5백
		금호타운	148/45	1억6천	1억1천2백
	봉선동	아델리움	128/39	4억1천	2억8천7백
		스윗닷홈	218/66	4억2천	2억9천4백
		무등파크	105/32	9천5백	6천6백
		무등파크	165/50	2억	1억4천
동구	운림동	라인광명	155/47	1억7천	1억1천9백
북구	연제동	현대	201/61	1억6천5백	9천2백
	운암동	휴튼	142/43	1억3천	1억3천3백
	문흥동	금호타운	105/32	1억2천	8천4백
	양산동	GS자이	161/49	2억3천	2억3백
	일곡동	롯데	135/41	1억8천5백	1억2천9백
서구	치평동	금호4차	109/33	1억4천5백	1억1백
		중흥	128/39	1억3천	1억3천3백
	내방동	해태	208/63	2억2천	1억5천4백
	화정동	대림e편한	181/55	4억	2억8천
	유촌동	버들주공	109/33	1억2천	8천4백
	풍암동	금호타운	148/45	1억7천5백	1억2천2백

근린시설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동구	금남로4가	776/3231	31억6천2백	11억3천3백
북구	우산동	740/3118	35억8천6백	18억3천8백
		329/331	8억3천3백	4억4천3백
	오치동	350/1097	8억1천8백	5억7천2백
서구	농성동	555/2289	28억6천4백	12억7천8백
달양군	금성면	5923/5536	9억5천9백	5억3천7백
	용면	3054/7195	8억3천	3억7천2백
화순군	화순읍	255/321	3억6백	2억1천4백

숙박시설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쌍암동	599/1812	19억9천2백	11억1천5백
		533/2495	25억7백	17억5천5백
남구	백운동	509/1389	14억1천9백	8억3천8백
동구	계림동	358/1000	8억7천2백	3억8천
	대인동	497/1634	10억8천9백	7억6천2백
북구	신안동	353/1134	11억5천4백	3억3천1백
화순군	도곡면	1285/3261	32억4천6백	14억5천4백

콘도/펜션/다세대/오피스텔

지역	소재지	명칭	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동구	계림동	원룸	298/534	4억3천9백	3억7백
북구	풍향동	원룸	179/477	3억4천3백	1억8천2백
서구	치평동	렌드피아	12평	5천3백	3천7백
		휴먼오피스	16평	7천6백	5천3백

특목물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북구	신안동	553/2665	19억8천5백	8억8천9백

토지(전, 답, 임야, 대지)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쌍암동	대지	441/133	4억8천5백	2억7천1백
	삼거동	임야	4860/1470	1억1천6백	6천5백
	송대동	답	7402/2239	3억3천3백	2억3천3백
북구	오룡동	대지	3305/1000	6억1천1백	4억2천7백
나주시	노안면	과수원	2936/888	9천8백	6천7백
	다도면	전	5500/1663	3천8백	2천5백
	금천면	과수원	3418/1033	1억7천	9천5백
		답	2357/712	4천8백	3천4백
		임야	1203/363	1천2백	8백
	산포면	답	1532/463	4천5백	3천2백
	등강면	답	1906/576	2천	1천4백
	문평면	답	2658/804	3천1백	2천2백
담양군	봉산면	전	14013/4238	2억2천4백	1억2천5백
	담양읍	답	3000/907	9천	6천3백
	창평면	임야	1038/313	4천	2천8백
	용면	대지	946/286	7천2백	5천

토지(전, 답, 임야, 대지)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곡성군	겸면	답	2906/879	2천9백	2천
		임야	38888/11763	6천3백	4천4백
	석곡면	답	1963/594	2천3백	1천6백
영광군	홍농읍	답	9959/3012	6천7백	4천7백
	군남면	답	5859/1772	5천8백	4천1백
	염산읍	전	736/223	1천6백	1천1백
영암군	신북면	답	3490/1055	4천	2천8백
	도포면	전	4000/1210	2천8백	1천9백
	시종면	답	3884/1168	3천	2천1백
장성군	북하면	대지	893/270	8천1백	5천6백
	장성읍	답	2050/620	4천7백	3천3백
	황룡면	답	6879/2080	6천8백	4천8백
	진원면	전	31144/9421	2억7천4백	1억9천2백
함평군	손불면	답	9531/2883	5천4백	3천8백
	함평읍	답	4965/1501	7천	4천9백
	월야면	전	1086/328	8백	6백
		전	1190/360	1천2백	8백
	학교면	전	1663/503	1천3백	9백
	신광면	답	2760/835	1천9백	1천3백
화순군	화순읍	대지	1300/393	3억3천8백	1억8천9백
	능주면	대지	883/267	4천2백	2천9백
	청풍면	임야	49346/14927	4천4백	3천1백
	이양면	전	4877/1475	5천8백	4천
	동복면	임야	47405/14340	2천1백	

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우산동	167/196	1억1천2백	7천9백
	연산동	1035/234	1억6천3백	1억1천4백
	본덕동	909/144	1억8백	7천6백
남구	월산동	152/144	1억9백	7천6백
		154/191	9천3백	6천5백
	양림동	417/168	2억1천2백	1억4천8백
	봉선동	197/202	1억8천8백	1억3천4백
북구	운암동	185/211	1억5천4백	8천6백
	두암동	190/134	1억2천8백	8천9백
	삼각동	413/182	1억6천5백	5천9백
	누문동	436/80	2억5천4백	2억6백
서구	화정동	171/187	1억5천3백	8천6백
	풍암동	210/222	2억4천	1억6천8백
	쌍촌동	197/235	1억7천8백	1억4천2백
나주시	성북동	2192/183	1억3천5백	7천5백
담양군	환평면	325/204	4천2백	2천9백
	대덕면	540/107	2천3백	
장성군	남면	434/138	7천4백	5천2백
	북이면	605/308	5천8백	3천9백
함평군	손불면	711/221	3천9백	2천7백
	월야면	284/157	2천2백	7백
	대동면	1243/272	1억1천	6천2백
	신광면	516/138	1천9백	8백
화순군	남면	330/98	3천6백	2천
	이양면	702/105	2천2백	1천6백

• 서구청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 권리분석-현장답사-임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알선)-명도(이사)

두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관리소홀 벌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바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주지 합장 -

관)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